자기 소개서

|  |  |
| --- | --- |
| 성장과정 | ‘대한민국의 지식 기반 산업을 이끌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전문가’로 발전하고 싶은 정지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라서, 건설 회사에서 다닌지 2년만에 해외로 장기간 동안 외국인 현지 동료들과 같이 대형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용기를 발휘하였고, 인문학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IT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고 엔지니어간 커뮤니케이션도 탁월하여 프로젝트 정보 관리자에서 IT 매니저로 직무를 전환하여 수십개의 건설 현장의 IT 비즈니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더 성숙한 관리자로 발전하고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비즈니스 스쿨에 입학하여 인종도 문화도 서로 다른 32개국 학생들과 MBA 수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조화 시키는 스킬을 배우던 도중 세일즈포스, 구글, 시스코에서 근무하는 시니어 관리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들의 빅데이터 비즈니스 성과와 데이터 문해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담화를 듣고 난 후부터 데이터 과학의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깨닫게 되어 비즈니스 통계, 프로그래밍과 머신러닝을 동일 학교에서 순차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 분석 석사 프로그램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분야의 친숙도와 이해도를 키우기 위해 국내, 해외의 다양한 데이터 과학 강좌들을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특정 산업에 얽메이지 않은 다양한 개인 프로젝트들을 수행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소재 스타트업 프로덕트 매니저 및 SK Hynix의 부품, 장비 관리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에서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가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나이 / 성별을 불문하고 큰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일만한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사람들과 같은 팀을 이루어서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저의 다음 목표이고 만약 이런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면 저에게 살면서 가장 뜻깊은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
| 성격과 강점 |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 많은 얼리어답터 기질을 가진 저에겐 인터넷, 오픈소스, 디지털 플랫폼 문명을 확대 시켜주고 있는 데이터라는 존재와 불가분한 관계에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겪고 있을 때 보통 사람보다 현저히 빠른 저만의 데이터 수집 기술을 발휘한 다음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타당한 해결책을 들고 신속하게 행동에 옮기는 편입니다. 과거 아버지께서 큰 사고를 당해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누워계셔서 저희 가족들이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었을 때 저는 중국 건설 현장에서 프로젝트 정보 관리 업무로 한국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인터넷을 통해 저희 아버지 사건과 유사한 상황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정부 및 고용 법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상 제도를 파악하여 모든 지원 보조금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법률 관련 데이터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형사, 민사 소송을 전부 내고, 가족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 탄원서를 법원에 보냄으로써 가해자 징역 처벌 및 손해 배상금 42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비록 아버지께서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신 채 5개월간 병상에 누워 치료를 받으시다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갑작스런 위기 상황을 저희 가족이 큰 경제적 피해 없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정보를 구체화하고 인사이트를 얻은 다음 중요한 결정들을 올바르게 합의한 결과였다고 봅니다. |
| 특기사항 | 온화한 성격으로 조직 생활에 유연하게 적응을 잘하며, 남들보다 잦은 해외 근무 경력으로 인해 영어 커뮤니케이션 또는 문화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은 없는 편입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직무 프로세스들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상상을 많이하며, 순간순간 떠오르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 또는 프로젝트에 몰두를 오래하는 편이라 또래 동료들보다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 낼 때가 많습니다. 대학원과 인턴쉽을 하는 동안 엑셀, 파이썬, R, 타블로로 빅데이터 분석 작업을 했었을 때 데이터 시각화 및 프리젠테이션 작업을 월등히 잘한다는 의견을 평가자 피드백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만든 차트가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이해 시키는 시간이 가장 빨랐으며, 슬라이드 구성이 누구보다도 간결하고 명확하고 설득력 있어서 동료들로부터 PPT 천재라는 별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분석가로써 첫 급여를 받은 SK하이닉스 프로젝트에서는 클라이언트와의 사업 계획 발표 및 스토리텔링에 제가 준비한 환경 분석 결과물이 내년도 사업 추진 승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PM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앞으로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을 하게 된다면 원천 데이터를 잘 가공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비즈니스 주요 지표를 올바르게 정의하며, 데이터 툴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인사이트를 창출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는데 이바지 하겠습니다. |
| 생활신조 | 배우지 않으면 곧 늙고 쇠한다 (不學이면 便老而衰라)라는 고사성어와 일맥상통한 항상 배우고 익히는데 몸과 마음을 쓰자가 저의 생활 신조입니다. 기회가 닿았을 때 보통 사람들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 넓은 식견을 얻으면서 VUCA(변동적이고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모호한)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것이 저의 지향점입니다. 대학원 졸업 후 컴퓨터 공학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8:1의 경쟁을 뚫고 (1,711명이 지원하고 213명이 선발) 구글 머신러닝 부트캠프에 일원이 되어 모든 교육 과정들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CNN 이미지 분석, NLP 자연어 처리 기술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세상을 변하게 한 것처럼 디지털 혁신의 새로운 물결이 될 것이고,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Fast Learner가 되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들어가 신경망 이론을 숙지하고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서 였습니다. 앞으로 저와 비슷한 목표를 가진 동료들이 있는 조직으로 들어가 비즈니스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핵심 인력으로 활약을 하고 제가 가진 머신러닝 보유 기술과 프로젝트 관리 노하우를 십분 발휘하여 치열한 비즈니스 경쟁 레이스에서 애플 코리아가 꾸준히 성장해 가도록 만들겠습니다. |
| 지원동기 및  입사 포부 | 저에게 맞는 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업이 데이터를 이용한 가설 검증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한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조직의 대표가 데이터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려는 리더쉽이 있는지,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MBA 수업 중 Apple의 사업 성공 Case를 분석해 보니 위의 기준들을 모두 다 충족하였으며 또한 최신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 맞춤 콘텐츠를 보여주는 앱스토어 추천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ML 연구 논문을 발표하면서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는 점이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업무와 일치했었기에 이렇게 지원서류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사를 하게 되면 구성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를 통한 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작업에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저의 장점인데 데이터의 성격과 특징을 잘 대변하는 맞춤 모델을 발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매출 증가와 더불어 고객의 만족도가 대폭 상승하는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애플 코리아가 앞으로도 오랜 세대에 걸쳐 사랑받고 높은 고객 충성도를 가진 회사로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저의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